

9월 한달에만 외환보유액 200억 달러 급감

지난달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 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200억달러 가까이 급감했다.

6일 '경향신문'이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달러로, 8월 말(4,364억3,000만달러)보다 196억6,000만달러나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

인 2008년 10월(274억달러)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외환보유액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9월 감소율(-4.5%)은 역대 32번째 수준에 불과하다.

외환보유액은 3월 이후 4개월째 내리막을 달리다가 7월 반등했으나 8월과 9월 다시 두 달 연속 빠졌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제·회사채 등 유가증권(3,794억1,000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155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예치금(141억9,000만달러)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 특별인출권(SDR·141억5,000만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 (42억3,000만달러)도 각 37억1,000만달러, 3억1,000만달러, 1억달러 줄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일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8월 말 기준(4,364억달러)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549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921억달러)과 스위스(9,491억달러), 러시아(5,657억달러), 인도(5,604억달러), 대만(5,45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66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 (일각의) 외환위기는 표현은 현재 한국 경제를 묘사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인 한국 부동산 쇼핑 감소

달러화 강세에 따라 원화 가치가 하락했지만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예측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5일 '헤럴드경제' 가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 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월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건물, 토지, 집합건물 포함)을 사들인 수는 996명으로, 1,000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외국인들의 한국 내 부동산 매수는 2015년 6월 1,100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은 이후 줄곧 1,000건 이상을 유지해왔다. 1,000명 이하를 기록

한 것은 2017년 2월 991건 이후 5년7개월 만이다. 특히 서울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99명에 그치며 2013년 8월(83건)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들의 한국 내 부동산 매도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올해 내내 500명대를 유지하던 것이 지난달에도 429명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것은 외국인들의 한국 내 부동산 투자에 호재이지만 한국 부동산의 하락세를 전망하고 매수 시기를 늦춘 외국인이 많은 때문으로 분석한다. 또 '킹달러'를 용인하는 미국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당분간 관망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야택시 기본요금 1만원 넘긴다



▲ 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야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3시) 택시난 완화를 위해 호출료가 현행 3,000원에서 최대 4,000~5,0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의 택시요금인상이 완료되는 내년 2월부터는 서울 심야시간대 택시 기본요금이 호출료 포함 1만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날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확대, 택시 서비스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택시 공급 확대가 대책의 핵심이다. 택시의 심야시간대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택시 중개 서비스의 호출료가 최대 4,000원으로, 가맹 택시 서비스의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심야 호출료의 세부적인 인상폭은 이달 중 택시 서비스업체별로 호출요금제가 출시된 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할증요금 인상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서울에서 자정~오전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 호출료 최대 5,000원 등 기본요금만 1만1,000원을 넘기게 된다.

호출료 인상은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우선 시범운영되고, 택시난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요청 시 호출료 인상을 적용키로 했다.

승차거부를 막기 위한 조치도 도입된다. 호출료 지불 시 중개택시는 승객의 목적지가 미표시돼 배차되고, 가맹택시는 '강제배차' 된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